

서정원의
불교미학산책

㉒ 남산 1

‘법화경’ 영산 위에서 말하려 했던 것

이번 산책에서는 동국대 서울캠퍼스를 둘러본 긴 시간 동안 이름만 언급된 남산에 대해 생각해 보자.

동국대가 남산에 있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남산이 동국대의 전제란 관점에서 출발하면, 지금에서야 말하기는 멋쩍지만 필자가 수차례 연재하는 동안 ‘미학’이란 전제를 얼마나 충실히 설명했는지를 돌아보게 된다. 산책이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라도 미학으로 동국대와 불교를 톺아보는 작업의 전제가 무엇인지 밝혀야 할 듯하다.

필자가 〈법화경〉을 중심으로 공부하고 있다는 점은 몇 차례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한다. 〈법화경〉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은 겉으로는 그리 대단한 인연이 아니다. 학부 저학년 시절 어쩌다 얻어 보게 된 〈대승불교란 무엇인가〉란 책 덕분이었다.

이 책은 지금으로부터 거의 반세기 전 당시로서는 40년이 다 돼 가는, 한마디로 다소 낡은 연구집이었다. 하지만 필자가 사실상 처음 본 전문학술서였기에 불교를 연구한다는 의미가 어렴풋하게라도 잡힐까 싶어 열심히 읽어 봤다.

하지만 말 그대로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란 것 외에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다. 처음 만난 벽이랄까, 그 충격은 상당히 컸다. 논문 몇 편을 모아 놓은 책이기에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없어서일까, 개별 논문들을 몇 번이고 통독했지만 읽었다는 사실 외에 해변의 모래를 아무리 꽉 움켜잡아도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빠지듯 글자들이 빠져나갔다. 그런데 그중 손아귀에 남는 모래알 세 글자가 있었으니, 그것이 〈법화경〉이었다.

〈대승불교란 무엇인가〉란 제목에 걸맞게 그 책은 ‘대승경전 성립론’에 한 챕터를 할애했는데, 그 중심에 〈법화경〉 성립론을 먼저 설명하고 이를 기준으로 다른 경전들의 성립론을 구성했다. 말하자면 〈법화경〉이 북극성이고 다른 경전들은 이를 기준으로 흩어져 있는 별들과 같았다. 필자가 이해한 것은 〈법화경〉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점뿐이었다. 그래서 〈법화경〉이나 ‘법화’란 단어가 들어간 책들을 닥치는 대로 읽기 시작했다. 당연한 수순으로 그다음 만난 것이 천태였다.

천태 자체는 처음에 거부감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법화경〉이 무엇인지도 모르겠는데 이 경전을 바탕으로 전(全) 불교를 재편하고 있는 천태가 이해될 리 없었다.

그럼에도 또 다른 인연으로 천태를 전공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필자는 청개구리처럼 화엄학을 들으며 천태의 길을 걷겠다고 다짐했다.



서울 남산 자락에 위치한 동국대 서울캠퍼스 전경.

남산서 미학으로 동국대·불교 톺아보기
대승불교 주축 ‘법화경’ 통이해 난해
경전을 이해·해석 대신 감상하게 돼

필자가 학부생이던 당시, 지금은 은퇴하신 해주 스님이 화엄학을 지도하셨는데 수업이 시작되면 곧바로 무진법문을 풀어내셨다. 의상 대사는 오척신의 몸 그대로가 법성신이라고 했는데 해주 스님은 바로 그 오척신의 몸으로 화엄법계를 펼치시는 분이었다. 그 모습이 너무나 멋있었다.

그런데 화엄의 피할 수 없는 숙적이 바로 법화 아닌가. 대승불교의 지극(至極)이 누구인지를 두고, 화엄은 스스로를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특별한 ‘별교일승’으로, 법화를 일승이기는 하나 아직 방편이 남아 삼승과 함께하는 ‘동교일승’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이 점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래서 법화를 말하기 위해서라도 천태를 해야 함을 느끼고 대학원에 진학했다. 석사 때는 화엄은 교학만 있고 천태는 교학과 수행을 일치시킨다는 점에 착안해 그 우위를 말하기 위해 천태의 교관일치를 주제로 논문을 작성했다. 나름 천태에 대한 이해도 어느 정도 있다고 말하기에 아쉽지 않게 쓴 논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논문을 작성하면서 상식적으로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르게 천태의 핵이 〈법화경〉이 아니라 원교(圓教)에 있음을 확인하게 됐다. 천태는 법화주의가 아니라 원교주의라는 말도 시기를 비슷하게 해 다른 연구들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청개구리로서 또 한 번 천태가 아니라 순수하게 〈법화경〉을 내 언어로 곱씹어 봐야겠다는 생각으로 박사과정에 입학하게 됐다.

이때까지는 ‘이해’, ‘해석’이란 틀 안에서 〈법화경〉을 분석하겠다면서 달려들었다. 하얀 건 종이요, 검은 건 글씨던 학부생은 이제 죽어서 없고 나름 연구자 구색을 갖춘 과정생이 못할 게 무엇이 있겠나 덤벼든 것이다. 여러 측면에서 접근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었다. 〈법화경〉을 말하지 않은 조사가 어디에 있겠는가. 동아시아 불교 전체에서 〈법화경〉에 대한 해석과 이해를 나열하는 것만으로도 연구자의 한 생애가 걸릴 일이었다.

이렇게 자료를 보면서 다시 여러 조사들의 해석과 이해가 〈법화경〉의 문맥과 맞는지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충격적이었던 건 누구의 이해도 〈법화경〉과 맞지 않다는 것이었다.

여러 선학들은 〈법화경〉의 특정 부분과 문장을 토르소처럼 잘라 필요한 부위만 가져가 요리했을 뿐, 경전 전체의 문맥을 고려하는 연구는 보이지 않았다. ‘도대체 왜 이런가’하면서 〈법화경〉을 읽고 또 읽었다.

또다시 충격을 받은 것은 〈법화경〉에 문맥이 전혀 없다는 점이었다. 〈법화경〉은 구절구절 따로 보면 이해가 되지만 경전 전체를 통째로 이해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제야 왜 조사와 선학들이 〈법화경〉을 토막 내 그 부분만을 경전의 전체인 마냥 인용했는지 알게 됐다. 본래 이해와 해석의 측면에서 〈법화경〉은 알기 어려운 경전이며 선학들 또한 자신의 알음알이에 맞춰 이 경전을 꾸겨 넣거나 빵틀로 지저분한 부분은 잘라 내어 정돈한 뒤 그릇에 담아 내놓은 것이었다.

연구방법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 아니, 연구방법이라기보다는 사고방식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 ‘이해’와 ‘해석’을 배제한 연구방법이라니. 사실 그때 살짝 공부를 놓게 됐다. 별다른 길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밖으로는 충실히 과정생 시절을 보내는 척하면서 도피하듯 다른 철학, 이론 책들을 보기 시작했다. 별다르게 불교를 읽어 갈 길이 없어서 경전을 읽을 수가 없었다. 그때 도피하듯 찾아 읽은 책들 가운데 ‘미학’을 주제로 한 것들이 있었다. 해석의 반대로 감상을, 이해의 반대로 스타일을 말하고 있었다. 그제야 필자는 〈법화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스타일을 감상해야 함을, 그래야만 〈법화경〉을 통짜로 이해하게 됨을 직감하게 됐다.

(다음호에 계속)

〈동국대 박사〉

수행·견해 잃은 이와는 가까이 말라



법공 스님의
〈지장십륜경〉 강의

㊹ 삼승의 바른 법을 지키는 길

친근해야만 할 승려와 사람[親近供養僧及人]

“선남자야, 무량한 유정들이 계율을 깨뜨리고 악행하는 비구들을 친근하면 모든 선법을 잃고 무간지옥에 떨어지느니라. 그러므로 천상에 나서 열반의 즐거움을 얻고자 하면 승도(勝道)사문을 친근하고 공양하며, 그에게 삼승의 긴요한 법을 묻고 들어야 하며, 혹은 시도(示道)와 명도(命道)사문을 구해야 하고, 만일 그런 삼도의 사문이 없으면 오도(汚道)사문 가운데서라도 스승을 구해야 하느니라. 비록 계율은 깨뜨렸지만 바른 견해가 있고, 뜻과 수행을 갖추었으면 마땅히 찾아가 공양하고 삼승의 긴요한 법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수행과 뜻과 견해까지 깨뜨린 사람은 찾아가 친근 공양하지 않아야 한다. 또 그가 계율은 깨뜨렸더라도 삿된 견해가 없고 뜻과 수행과 견해를 갖추었으면 마땅히 찾아가 삼승의 법을 물어야 하나, 그를 경멸하거나 헐뜯지 말아야 한다. 또한 삼승 중 한 승(乘)을 택하여 배우거나 정진하더라도 다른 승을 경멸하고 헐뜯지 않아야 한다. 만일 그가 삼승 가운데 다른 한 승이나 한 게송을 헐뜯으면 그와 친근, 동행, 사업을 하면 안 된다. 그리하면 함께 무간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만일 유정 등이 삼승 가운데 한 승을 헐뜯고 비방하거나, 삼승 모두를 비방하는 사람을 친근하여 법을 묻고 들으면 이 인연으로 모두가 무간지옥에 떨어져 큰 고통을 받으면서 벗어날 기약이 없느니라.”

사신문송본생의 인유(捨身聞頌本生의 引喩)

“왜냐하면 선남자야, 나는 과거에 보살행을 닦아 위 없는 지혜를 증득하려 할 때, 성문승이 설하는 바른 법이나 한 게송을 구하기 위하여, 내 몸의 손, 발, 피, 살, 가죽, 뼈, 머리, 눈, 뇌수 등을 다 버렸고, 독각승이 설하는 바른 법이나 한 게송을 위해 내 몸의 모든 것(손, 발, 피 등)을 버렸으며, 혹은 대승이 설하는 한 게송을 위해 내 몸의 모든 것을 버렸다. 이렇게 괴로움을 이긴 끝에 삼승 중 (그 하나를 얻었고) 한 게송이 가르치는 법을 얻었으며, (얻었을 때마다) 깊은 환희심을 내어 공경하고 받들어 지녀, 설한 그대로 수행하였으며 쉬지 않고 무량한 겁을 지내면서, 일체 고행을 수행하고서야 위 없는 지혜의 과(果)를 증득할 수 있게 됐고, 또 저 유정들을 이롭고 안락하게 하기 위해 삼승의 바른 법을 설명해 나타내 보일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한 게송만이라도 비방하거나 감추거나 없애서는 안 되며, 그것을 공경하고 읽고 외우며 묻고 들으면서 굳은 서원을 세워 증득하기를 구해야 하느니라.”

삼승의 호지(三乘의 護持)

“선남자야, 이같이 삼승에서 나온 요긴한 법은, 삼세의 항하 모래 수보다 많은 부처님이 말씀하시고 호지하시는 것이니라. 그것은 일체유정을 생사의 큰 고통에서 건지기 위해서이며, 삼보의 종성을 흥성하게 해서 끊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니라. 그러므로 이 삼승의 바른 법을 두루 믿고 공경해야 하며 비방·방해하여 없애서는 안 되느니라. 만일 누구나 이 삼승의 바른 법이나 한 게송만이라도 비방·방해·은폐하거나 없애면 반드시 무간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또 선남자야, 미래 부처님 국토에 사는 포악한 왕, 거사 등은 어리석으면서도 총명하다는 교만한 마음을 품고 … 삿된 견해로 질투하며 나쁜 벗을 친근하나니 이는 삼승의 성현의 법기(法器)가 아니니라. 그리하여 성문승의법을 조금 듣고 익히기만 해도 독각승과 대승의 법을 비방하며, 혹 독각승의 법을 조금 듣고 익히기만 해도 성문승과 대승의 법을 비방하며 널리 펴지 못하게 하느니라. … 이렇게 대승의 사람이라고 거짓으로 일컫고, 스스로 어리석고 교만한 힘으로 자기가 익히지 않는, 삼승의 바른 법을 비방하고 방해해 널리 퍼지지 못하게 하며 (자기가 익히지 않는) 삼승법을 배우는 사람을 질투하며, 비방하고 헐뜯고 욕하며 그 위세를 없애느니라.”

이사의 호지(二事의 護持)

“선남자야, 삼세의 모든 부처님과 보살마하살은 일체의 유정을 이롭고 안락하게 하기 위해, 큰 자비심으로 두 가지 일을 호지하신다. 첫째는 삼보의 종성을 흥성하게 해서 항상 끊이지 않게 하기 위해 세속을 버리고 출가해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는 것이요, 둘째는 삼승에서 나오는 긴요한 (법인) 사성제(四聖諦) 등과 상응하는 바른 법을 호지하시는 것이니라. 이 같은 두 가지 일은 오직 부처님과 보살들만이 능히 호지할 수 있으며, 성문이나 독각승 등이 할 일이 아니며 또 백천 나유타 수의 대범천왕·제석천왕·전륜성왕 등은 호지할 수 없느니라. 미래세 이 부처님 국토에 사는 포악한 왕 등은 나의 법에 의지해 출가하고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은 이를 보면 … 음식을 주지 않고 몸과 목숨을 해치느니라. 그들은 나의 모든 제자를 헐뜯고 욕하고 벌주며, 깊은 나의 법을 비방하고 없애려 하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과 보살이 함께 호지하시는 삼승의 바른 법을 방해·은폐해 널리 퍼지지 못하게 하느니라.” 〈송림사 주지〉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여 주 환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폐청소법, 치매·중풍 예방법 등성인병에는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에 좋습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은 꼭 드세요.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제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기침, 가래, 기관지염, 비염, 폐렴, 기관지폐렴, 폐 화농증, 편도선염, 축농증, 천식, 불면증, 수면장애, 어지럼증, 두통, 이명(귀울림), 구안와사, 조현병, 협심증, 위염, 위경련, 변비, 어깨·관절통증, 발목관절통증, 오십견, 목이 쉬었을때, 전립선 질환, 요실금, 콩팥위축, 방광염, 신장염, 황달, 간경화, 피부가려움증, 다이어트, 생리불순, 백내장, 각막염, 결막염, 녹내장, 황반변성, 야맹증, 원형탈모증, 삼차신경통(상지, 중지, 하지) 등

골담초환	산수유환	어성초환
재료명: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가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재료명: 산수유, 호박씨앗, 옥수수수염, 복분자, 사상자, 토사자, 구기자, 오미자, 천궁, 우슬, 복령, 산청목, 질경이, 뽕나무뿌리껍질, 두충, 산사열매, 맥아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